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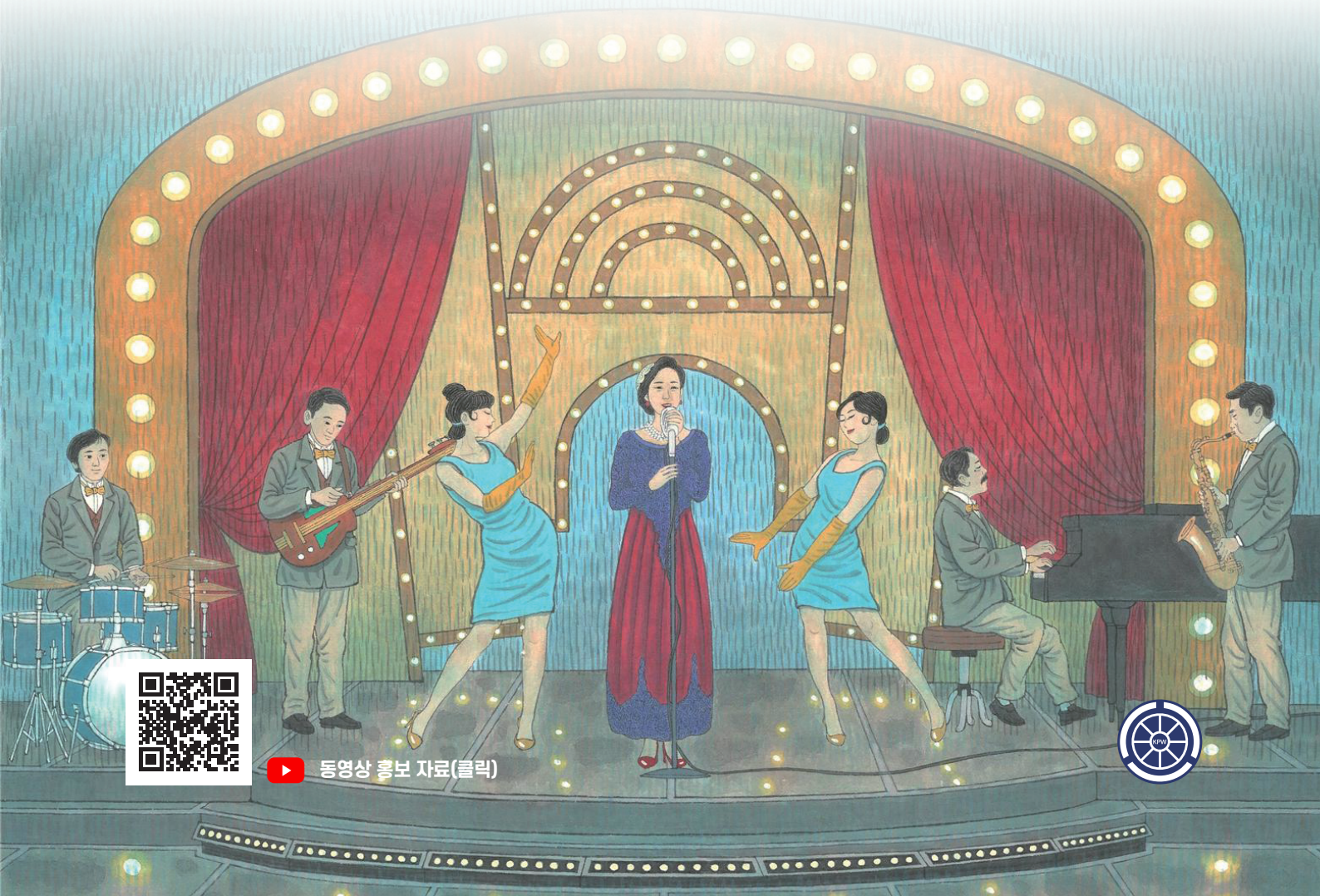



인천하늘고등학교

CEDA 방식 토론을 활용한
2020 인천하늘고등학교 교과 기반 미디어 프로젝트

대중가요, 테크놀로지와 만나다

테크놀로지에 의해 탄생하고 발전하는 대중가요 탐구



 동영상 홍보 자료(클릭)



대중가요, 테크놀로지와 만나다

테크놀로지에 의해 탄생하고 발전하는 대중가요 탐구



연구 요약

- 고등학교 국어, 외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대중가요의 역사를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탐구하는 프로젝트
- 일제강점기의 대중가요를 둘러싼 **이식론**과 **자생론**을 모두 탐구하고, **CEDA 방식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술, 구술,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발전시키는 프로젝트

- 문제 제기 >**
- 테크놀로지에 의해 탄생한 대중가요의 특징은 무엇일까?
 - **보고 듣는 시대**의 현대 대중가요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을까?
 - 일제강점기 대중가요는 외래에 의해 **이식**된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생겨난 것인가?

교과 기반 프로젝트 >
(8개 팀)

R	독서	주제	근대 신문 광고와 유성기 문화 탐구
		관련 교과	문학(1학기), 독서(2학기)
L	문학	주제	일제강점기 대중가요 탐구
		관련 교과	문학(1학기), 독서(2학기)
E	영어	주제	미국의 축음기와 라디오 문화 탐구
		관련 교과	문학(1학기), 영어 I (1학기), 영어II(2학기)
Po	정치와 법	주제	일제강점기 대중가요 검열의 법적 문제 탐구
		관련 교과	문학(1학기), 정치와 법(1학기), 윤리와 사상(1학기)
Ph	물리	주제	유성기의 재생과 녹음 방식의 탐구
		관련 교과	문학(1학기), 물리학 I (1학기)
M1	수학	주제	한국 대중가요 가사의 계량적 분석 (1)
		관련 교과	문학(1학기), 수학 I (1학기), 수학II(2학기)
M2	수학	주제	한국 대중가요 가사의 계량적 분석 (2)
		관련 교과	문학(1학기), 수학 I (1학기), 수학II(2학기)
M3	수학	주제	한국 대중가요 가사의 계량적 분석 (3)
		관련 교과	문학(1학기), 수학 I (1학기), 수학II(2학기)

- 융합 프로젝트 >**
- CEDA 방식 토론 대회
 - 논제 : 대중가요는 일제에 의해 이식되었다.

- 작품 >**
- **IMRaD 포스터** : 교과 기반 미디어 프로젝트 8개 팀별 연구 성과 발표
 - **교육용 다큐멘터리** : 『대중가요, 테크놀로지와 만나다』제작 _ 중·고등학교 수업용

연구 과정

기획	프로젝트 설계	2019.10 ~ 2019.12	인천하늘고등학교 꿈열정지원부 & 인천대학교 사범대학(김평원 교수)
	학생 설명회	2020.06.09	※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1~5월까지 준비 프로젝트 안내와 연구 과정 설명회
팀별 프로젝트	소양 교육	2020.08.11~ 2020.09.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한글박물관 3층, 2020년 기획 전시 <노랫말-선율에 삶을 신다>전 관람 ● 드라마 제작 과정의 이해 - SBS 박수진 PD ('사의 찬미' 연출) ● 예능 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의 이해 - SBS 이환진 PD ('런닝맨' 연출) ● 언론 경제 기사의 이해 - MBN 엄해림 기자
	자료 수준 연구	2020.08.02	팀별 탐구 안내
	정보 수준 연구	2020.08.09	팀별 과제 발표
	지식 수준 연구	2020.08.10~ 2020.09.25	CEDA 방식 토론 준비와 예선
	평가	2020.09.26	CEDA 방식 토론 결선 대회
연합 프로젝트	실습	2020.09.27~ 2020.11.30	가요 프로그램 영상 편집 실습 가수 진달래의 노래 <아리아리>
	작품 제작	2020.09.27~ 2020.11.30	교육용 다큐멘터리 제작
	발표회	2020.12.01~	프로젝트 포스터 발표회 다큐멘터리 시사회

1

HANEUL ACADEMY

교육 원리



교과 기반 프로젝트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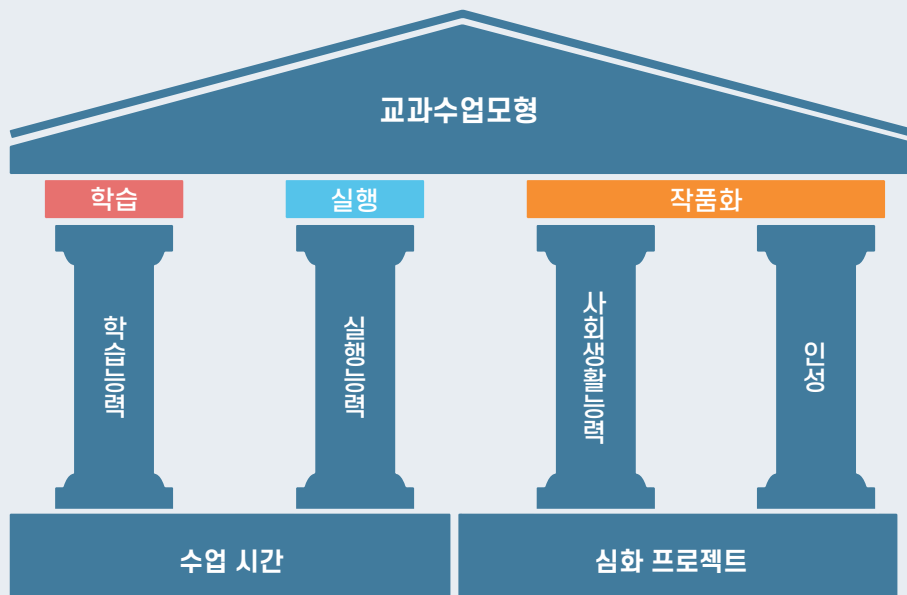


교과 기반 프로젝트	06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작품화 활동	08
IMRaD로 탐구하고 발표하기	10
CEDA 방식 토론	12

교과 기반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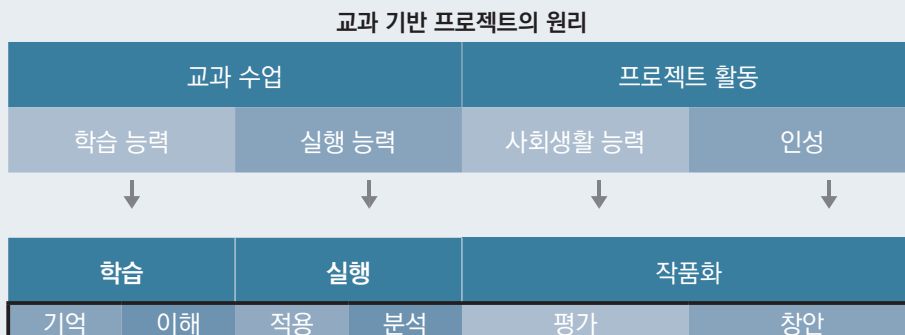
1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한 작품화 활동

UNESCO는 21세기에 요구되는 학습 비전으로 **학습능력(learning to know)**, **실행 능력(learning to do)**, **사회생활 능력(learning to live together)**, **인성(learning to be)** 함양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하늘고등학교는 21세기 학습 비전인 네 개의 기둥이 교과 수업을 떠받치는 구조로 비유하여, 정규 수업 시간과 이를 응용한 교과 심화 프로젝트를 실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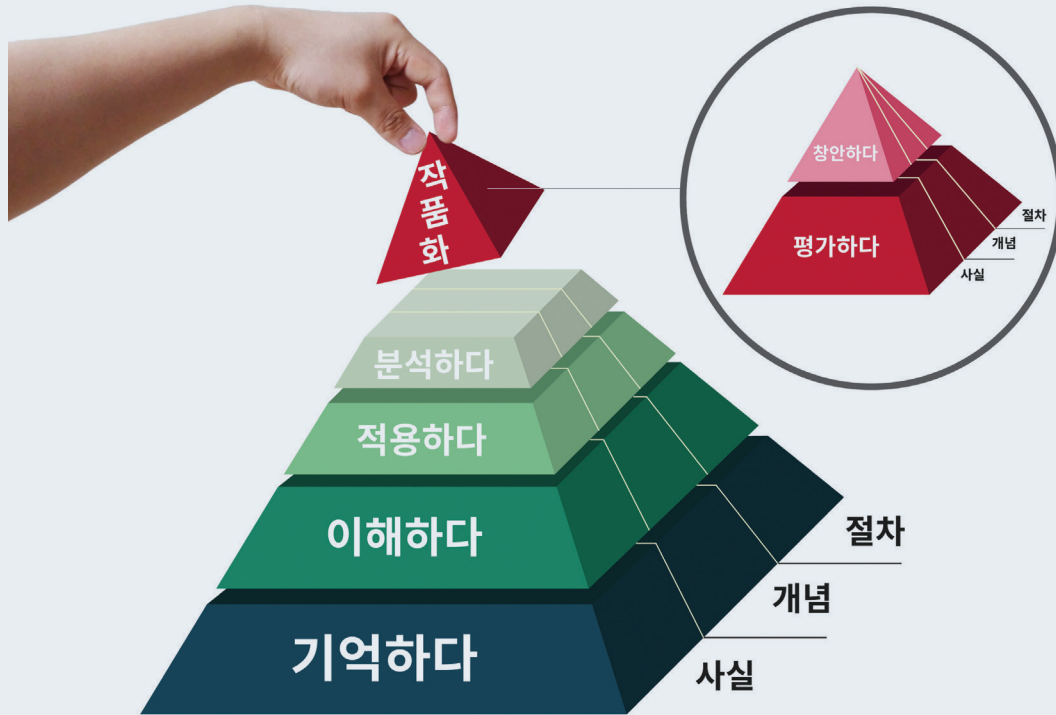
● 21세기 교육을 떠받치는 네 개의 기둥 ●

학습과 실행은 정규 교과 수업에서, 작품화 단계에 해당하는 사회생활 능력과 인성은 심화 프로젝트를 통해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학습, 실행, 작품화 단계는 선생님들에게 익숙한 블룸의 교육목표에 맞게 연결 지었습니다.



2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한 작품화 단계

작품화 단계는 최상위 캡스톤 디자인 단계로서 블룸의 교육목표(2001)에 맞게 '평가하다'와 '창안하다' 단계와 연계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블룸의 교육목표 '종합'과 '평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블룸의 교육 목표 위계(2001)와 작품화 단계 ●

작품화 단계는 수업 중 프로젝트(1단계~3단계)가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4단계)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교실 프로젝트와 교과 기반 프로젝트의 차이

수준	방법	설명	성격
1단계	수행평가	간단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차원	교실 프로젝트 (수업)
2단계	프로젝트법	학생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여 해결하는 차원	
3단계	프로젝트 기반 학습	프로젝트에 맞게 교수 학습을 구성하는 차원	
4단계	프로젝트 수행법	교과를 활용하여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차원	교과 기반 프로젝트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작품화 활동

1 작품화 활동을 통해 성장하는 학생의 역량

미래 사회를 대비한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학생의 역량은 학생과 교사가 모두 인지하고 있는 '객관적인 역량'과 학생은 모르지만 교사가 파악하고 있는 '잠재적 역량', 교사는 모르지만 학생이 자각하고 있는 '은폐된 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아는 사실	학생이 모르는 사실
교사가 아는 사실	객관적 사실	잠재력
교사가 모르는 사실	은폐된 사실	미지의 사실

● 학생의 역량 프레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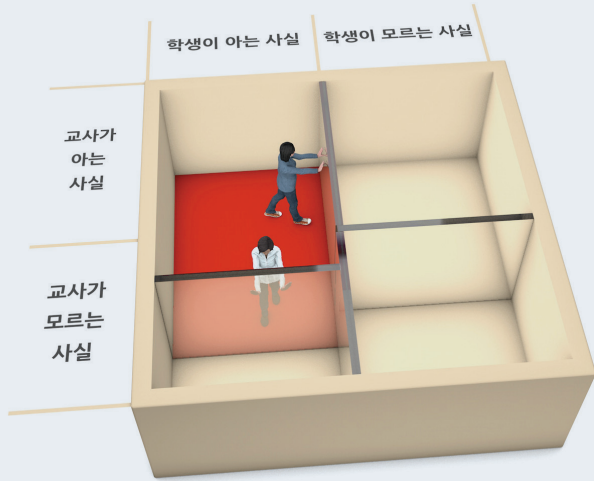
| 정규 학교 수업만으로 교사가 학생의 역량을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교과 기반 프로젝트 활동

학생과 교사가 모두 모르는 미지의 사실을 제외하고, 학생이 모르는 잠재력과 교사가 모르는 은폐된 사실은 교과 기반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충분히 객관적 사실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교과 수업을 확장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모르고 있었던 잠재력을 교사와 학생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객관적 사실의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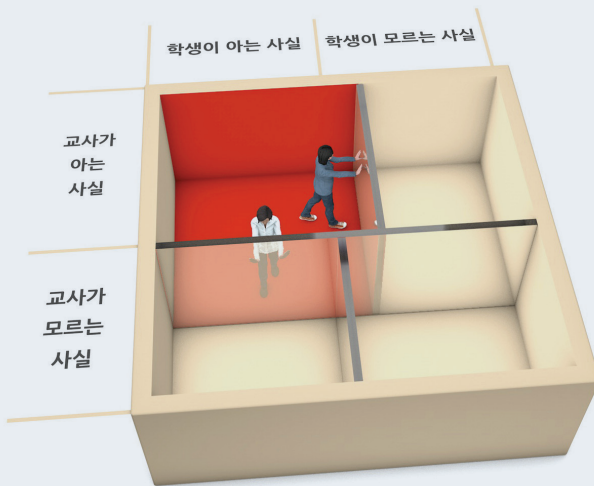
학생들은 교사가 모르고 있었던 은폐된 사실의 영역을 객관적 사실의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학교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교사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 학생의 노력에 의한 학생 역량 프레임의 변화 ●

	학생이 아는 사실	학생이 모르는 사실
교사가 아는 사실	객관적 사실	잠재력
교사가 모르는 사실	은폐된 사실	미지의 사실

| 교사는 정규 수업 시간은 물론 프로젝트활동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관찰합니다.



● 교사의 노력에 의한 학생 역량 프레임의 변화 ●

	학생이 아는 사실	학생이 모르는 사실
교사가 아는 사실	객관적 사실	잠재력
교사가 모르는 사실	은폐된 사실	미지의 사실

| 이처럼 프로젝트 활동은 **교사가 모르고 있었던 영역(은폐된 사실)**과 **학생이 모르고 있었던 영역(잠재력)**을 객관적 사실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과정입니다.

IMRaD로 탐구하고 발표하기

1 과학 논문의 IMRaD 포맷을 활용하여 탐구하기

저명한 과학 저널에서는 IMRaD(서론, 방법, 결과, 토론) 포맷으로 논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는 인문·사회·자연·공학 분야 모두 IMRaD 포맷으로 교과 심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IMRaD의 위계

수준		성격	특성
I (Introduction)	서론	Wh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대상과 연구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함. · 연구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좁게 설정함.
M (Methods)	방법	H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수행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밝힘. · 다른 사람이 동일한 방법으로 재현하여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술함.
R (Results)	결과	Wh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를 정직하게 모두 밝힘. · 연구 문제 해결 여부를 밝힘. · 중요한 연구 결과들을 항목별로 잘 구성하여 산만하지 않게 제시해야 함.
A (and)	매개 모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RD로 하면 '아이엠알디'로 발음해야 하므로, 매개모음 a를 포함하여 IMRaD로 표시하여 '임래드'로 발음하기 쉽게 함
D (Discussion)	토론	So Wh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결과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연구 목적 달성 여부를 밝힘. · 어떻게, 왜, 이런 결론(Conclusion)에 이르렀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함.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는 탐구의 위계인 ① 자료, ② 정보, ③ 지식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자료는 ① 설명하고, 정보는 ② 분석하며, 밝혀낸 지식은 ③ 논증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탐구의 위계

수준	성격	특성	방법
	탐색	타인(전문가)의 자료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자료	인용
	생성	실험이나 설문을 통해 얻은 자료	설명
	탐색	타인(전문가)이 밝힌 정보	인용
	생성	자료를 가공하여 의미를 부여한 것	분석
	탐색	다른 사람(전문가)이 밝힌 지식	인용
	생성	정보를 가공하여 의미를 부여한 것	주장

2 IMRaD 포맷으로 학술 포스터를 만들고 발표하기

- | 저명한 학회의 학술 대회에서는 **IMRaD 포맷**의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는 **IMRaD 포맷**으로 만든 포스터로 발표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 2014년~2020년동안 발표한 **80개 연구팀** 포스터 **80장**은 인천하늘고등학교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 인천하늘고 학생의 포스터 발표 장면 ●

CEDA 방식 토론

1 CEDA 방식 토론(교차 조사 토론)의 특징

주장과 반박을 주고 받는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자신의 주장만 말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1971년 미국 교차조사토론학회(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 CEDA)에서는 토론에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질문시간을 넣었으며, CEDA 방식 토론이란 미국 교차조사토론학회에서 제안한 토론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경쟁 토론 대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CEDA 방식 토론은 상대 측과 질문하고 답하는 교차 조사(Cross Examination)가 포함되었다는 점과 입장 교대(switch side) 원칙에 따라 토론 직전에 추첨으로 찬성과 반대가 결정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CEDA 방식 토론 대회 준비는 찬성과 반대를 모두 준비해야하므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CEDA 방식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이 탐구 프로젝트가 되는 까닭은 자료를 찾고 분석하여 입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론서를 모두 작성해야 하므로, 결국 두 편의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입론서를 완성하는 것에 그친다면 논술 시험과 같습니다. CEDA 방식 토론은 자신의 주장과 다른 상대 측의 논술 답안을 잘 들은 후에 상대방의 허점을 공격하는 질문을 한 후, 다시 한번 논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CEDA 방식 토론은 논술 시험 후에 심사위원의 질문에 응답하는 구술 시험까지 보는 셈이며, 주장을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까지 포함하는 셈입니다.

CEDA 방식 토론에서는 자신이 지지하는 주장의 허점을 공격하는 상대 측 토론자의 반박을 방어함과 동시에, 상대측이 지지하는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논박해야 합니다. 입론을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주장의 우수성을 논리적으로 발표하고, 교차 조사 시에는 상대 측 토론자가 지적한 문제점에 현명하게 응답한 후, 반박을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주장의 우수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CEDA 방식 토론은 논술, 구술,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모두 발휘해야 하므로, 교과 심화 프로젝트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인천하늘고등학교는 융합 연구 후 논문을 발표하는 기존의 수레바퀴모형을 잠시 멈추고, CEDA 방식 토론을 기반으로 한 교과 심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② CEDA 방식 토론(교차 조사 토론)의 절차

CEDA 방식 토론의 순서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기존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입증의 부담**을 안은 찬성 측 토론자가, 마지막 순서에 반박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토론은 맨 마지막에 논박하는 측이 유리하기 때문에, 입증 부담으로 인한 불리함을 마지막에 발표하는 유리함으로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CEDA 방식 토론은 **공격과 수비가 교대로 진행**되는 일종의 야구 경기입니다. 공격과 수비가 교대되는 방식처럼 말하기와 듣기가 역동적으로 교차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이 지지하는 주장의 우수성을 논증하는 표현 활동과 상대방이 지지하는 주장을 잘 듣고 단점을 논파하는 활동을 모두 잘 해야 토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CEDA 방식 토론의 각 단계별 시간은 학생들의 수준과 수업 시간을 고려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CEDA 방식 토론의 진행 방식



2

HANEUL ACADEMY

교육 성과 I



IMRaD로 탐구하고 발표하기



R		독서	16
L		문학	17
E		영어	18
Po		정치	19
Ph		물리	20
M1		수학 1팀	21
M2		수학 2팀	22
M3		수학 3팀	23

1. Int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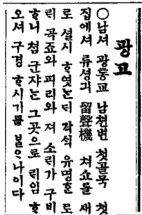
근대(일제강점기) 대중 문화는 유성기(축음기)의 보급과 음반 판매를 통해 발달하였다. 미국에서 발명된 유성기는 한반도에 들어와 보급되는 과정에서 신문 광고를 하게 되었고, 그중 일부는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다. 축음기와 음반과 관련된 신문 광고를 통해 매체에 영향을 받은 당시 사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성기와 관련된 근대 신문 광고를 수집하여 당시 사회와 문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2. Methods

- ① 구 한말과 일제강점기의 신문에 게재된 유성기 광고 분석
- ② 구 한말과 일제강점기의 잡지에 게재된 유성기 광고 분석

3. Results

① 1899년 4월 28일 독립신문 유성기 광고



초기의 유성기는 엄청난 고가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장하기보다는 한 장소에 모여 함께 듣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1899년 4월 28일자 독립신문 광고를 통해 서울 사대문 안 여러 곳에서 유성기 감상소를 설치하고 돈을 받고 들어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1907년 3월 17일 만세보 유성기 광고



1907년 3월 17일 만세보에 게재된 유성기 광고는 축음기 한국총대리점인 구미 제품 수입상 '심옥(즈지야)'에서 낸 것이다. 이 광고는 대한제국 황실 인물인 이강을 통해 상품을 홍보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왕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광고에는 한국 최초의 상업 음반도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미국 콜럼비아 레코드는 1906년 2월 한인오와 최흥매 외 3명을 일본 오사카로 초청해 녹음한 후, 미국 본사에서 음반을 제작하였다

③ 1923년 5월 18일 동아일보 축음기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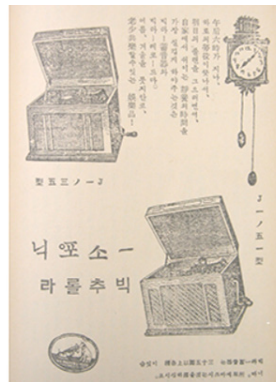
1923년 5월 18일 동아일보에는 일본 축음기 회사 '닛보노혼'의 축음기 광고가 게재되었는데, 순정효황후 윤 씨도 이 축음기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④ 1934년 4월 14일 조선일보 축음기 광고



1934년 4월 14일 조선일보에 게재된 광고에서는 '강대명량한 예술적 재생음'과 '레코드를 절대로 손상 않는 용기', 그리고 '자동시동 정지기'를 갖춘 휴대용 축음기 등으로 큰 호평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⑤ 1934년 6월, 잡지 <신가정> 축음기 광고



광고에 등장하는 축음기의 가격은 매우 비싼 편이었다. 그러나 광고는 '남녀노소가 사용할 수 있는 오락품'이라는 문구로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당시 광고를 제작한 주체가 대중의 의미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아니라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계층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1930년대에 문맹률은 77% 정도였고 실업률도 73%나 되었으므로 당시 일반인의 낮은 임금 수준으로는 신문이나 잡지를 구입하기 어려웠다.



이 광고에 등장한 휴대용 축음기는 음반 들리는 태엽 장치 등을 소형화하고, 소리를 키워주는 나팔도 납작하게 만들어 접을 수 있게 함으로써 무게와 부피를 대폭 줄였다.

'간판애보다 가법다'라는 비교 문구를 통해 휴대용 축음기의 장점인 '가벼움'을 더욱 강조하였다. 또, 비교 광고는 사람들에게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가로 옆에 '夕日は落ちて(저녁 노을은 지고)'라는 노래는 일본 쇼와 시대 초기의 대중가요로, 축음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함께 들어와 홍보에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Discussion

신문이나 잡지 광고를 통해 근대 문화를 탐구한 결과, 한반도의 민중은 일제강점기에도 불구하고 황실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 또, 축음기가 당시 라디오의 가격과 비슷했다는 점에서 가격이 비싼 편이었으며, 대중들이 보편적으로 소비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적 여건이 있는 부유층은 축음기를 구매하고, 일반 서민들은 감상소를 방문함으로써 대중문화를 형성했다. 이렇듯 축음기는 사람들이 문화를 소비하는 매체로 작용함으로써 한국 대중가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 기업이 한반도를 시장으로 여기고 축음기 산업을 확장 및 독점했으며 일본인 거주지를 설정해 상점 등을 운영하고 일본의 대중가요를 전파하였다.

1. Introduction

대중이란 지위, 계급, 직업, 학력, 재산 등의 사회적 속성을 초월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합체이다. 소수의 엘리트 집단과는 달리, 다수의 대중들이 향유하는 대중가요는 유희적이고 오락적인 성격을 띠며,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성을 추구한다. 우리 대중가요는 잡가와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왔던 대중들의 노래가 유행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던 일제강점기에 음반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에 널리 확산되었던 대중가요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Methods

- ① 문헌 연구 : 대중가요의 발전 과정과 종류 그리고 유행기 음반 시장 분석.
- ② 대중가요 분석 : 전래적 양식의 색이 짙었던 기존의 민요, 외래 양식이 유입되며 나타난 만요, 그리고 신유형가까지 분석.

3. Results

① 대중가요의 발전 과정

-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근대화로 기존 성리학적 생활의 혼동과 새로운 외국 문화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이는 사회질서의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음악의 장르적 구별과 향유층의 신분적 구별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더불어 근대식 극장 등의 수단을 통해 전통 음악이 근대 공간에 진입하게 되었고, 전통 예술이 근대적 문화 환경에 적응하였다.
- 본격적인 대중가요의 발전은 유행기의 유입으로 활성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07년 미국 콜럼비아사가 최초로 원반형 유행기 음반을 제작하며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축음기 사업이 시작되었다. 당시 음반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에서 많이 판매되었기에 경기민요가 중심인 전통 성악을 주축으로 하였다.
- 1910년 일본 음반회사인 일본축음기상회가 등장하며 음반 산업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여전히 예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전통 음악이 주류였다.
- 1928년을 전후로 경성에 일본 음반 회사가 세워지고, 전기 녹음 방식이 도입되면서 음질이 개선됨과 동시에 대량 생산되어 대중매체로 급부상하였다. 이때부터 기본적으로 음악의 방향은 일본의 유행가를 바탕으로 하였고, 전통 음악의 기반은 서서히 약화되면서 대중음악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더불어 전통 민요에 외국적인 요소가 가미됨으로써 혼합적 문화를 보이는 가요 또한 등장한다.

② 대중가요의 종류

- 유행기가 보급되는 초창기인 1920년대까지는 조선시대부터 불리던 잡가가 대중가요로 성장하였다. 잡가는 단순한 형식이 반복되는 유행형식으로 되어 있어, 3분 남짓한 유행기 음반에 취입하기 적당하였기 때문이다.
- 1930년대 후반에는 유행가로 지칭되던 외래 양식이 전통음악을 앞서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기존의 잡가, 판소리와 유행가의 수용층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보였다. 소비 가능 연령층인 신세대가 성장할 때까지 대중가요계의 주류 장르로 부상할 수 없었기에, 유행가의 성장에 약 10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이후 유행가는 신세대 문화로 자리 잡는다.
- 외래 양식의 이입은 기존의 가장 양식과 결합해 신민요라는 새로운 혼합 형식을 만든다. 대중가요는 전통 양식인 잡가와 외래 양식이라는 유행가로 이분화되었고, 신민요는 그 중간 지점에 자리 잡아 우리나라와 외국의 문화를 매개하였다. 그전의 민요가 잡가에서 비롯된 양식이었다면 신민요는 민요를 흥내 내어 창작된 대중가요이다. 유행가와 민요가 혼합된 형태로 어법은 민요를, 음악 어법은 유행가를 계승한다. 구전이 아닌 창작의 방식으로 작곡가와 작사자, 특정 가수가 존재한다는 대중가요의 전형적인 특징에서 전형적 민요와 구별된다.

③ 대중가요와 유행기

- 유행기를 통해 음악을 기록, 녹음할 수 있고 재생할 수 있게 되며 그동안 음악 감상이 가진 시공간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났다. 보급 초기에는 경제적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었으나 전기 녹음으로 인해 노래 범위나 수용 계층이 전폭적으로 확산되었고, 음반 시장의 성장이 촉진되었다.
- 유행기는 보급의 초기 시절 새로운 문명을 표상하는 문화, 교양으로서 사회에 자리 잡게 되었다. 긍정적인 면모와 다르게 1930년대로 넘어서며 유행기 음반은 ‘모던 걸’, ‘모던 보이’의 소비 문화를 주도하는 매체로 여겨지기 시작하였는데,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일어나는 식민지 한국의 분열적인 모습을 대표한다. 대중가요가 서구 문화에 대한 허구적 욕망과 이와 동떨어진 비참한 생활 현실이라는 우리나라의 이중적 모습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
- 유행기 음반은 전통 음악을 녹음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전통적인 재래 가장 양식에 집중되어 있던 유행기 음반 콘텐트는 일본과 미국을 통해 새로운 음악 양식들이 유입되면서 다채로워졌고, 시간이 흐르며 재래 양식과 외래 양식이 공존하게 되었다.

④ 대중가요 분석

· 민요

민요란 민중들 사이에서 저절로 생겨나 구전으로 전해지는 노래이다. 이는 즉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원래는 특정 지역에서 일정한 생활상의 기능과 더불어 전승되어 왔지만 19세기에서 20세기 사이 보고장을 떠나 널리 전파되며 고정된 기능에서 이탈하여 노래 그 자체로 불려지게 되는 변화를 맞는다. 문학적으로 한국 시가 형식의 기본형을 두루 갖추고 있는데, 대구 또는 문답으로 된 두 줄 형식이 있고, 몇 줄이 한 연을 이룬 다음 여음이 삽입되기도 하고, 여러 줄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있다. 사구체 향가, 여음이 삽입된 고려가요, 가사의 형식과 같다.

· 만요

만요는 1930년대에 발흥된 희극적 대중가요이다. 비극적 정조의 트로트와 반대로, 밝고 경쾌한 장르를 형성하여 당시 한국 대중가요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 음악적인 측면에서 유행가와 신민요가 혼용되었다는 견해도 있으나 재즈송이나 신민요 등 타 장르에 비해 양식적인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가사는 해학과 웃음을 동반하는 코믹한 성격이 강하게 표출되기 때문에 만요는 가사의 내용적, 정서적 특성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만요는 희화화된 노래의 특성상 다소 저속하거나 유치한 가사도 포함하곤 했는데, 중일 전쟁이 발발한 1937년 이후 사회 분위기가 경직되고 1940년대 들어 전시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만요와 같은 가벼운 유행가도 점차 사라졌다.

· 신유형가

한국에 트로트풍의 음악이 도입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말부터이다. 1920년대부터 많은 일본 가요가 한국어로 번역되고 일본에서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인이 편곡을 담당하는 일이 많아져 자연스럽게 융합되다가 1930년대 말부터는 조선어말살 정책으로 인해 갈수록 일본 가요에 동화되었다. 광복 이전까지 한국에서는 일본의 엔카풍의 대중가요가 유행하였다. 광복 후 왜색의 잔재를 없애고 주체성 있는 건전가요의 제작과 보급, 판소리와 재즈 기법 등이 도입되면서 엔카풍의 가요도 새로운 이름을 얻었는데, 그것이 바로 트로트다.

4. Discussion

일제강점기 대중가요의 발달 양상과 유행기의 등장은 대중가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 대중가요에는 크게 전통 양식과 외래양식, 혼합 양식이라는 세 가지 갈래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후 각 갈래를 대표하는 가사를 분석함으로써 일제강점기 대중가요에는 한국의 재래적 특징과 함께 외래적 양식도 드러난다는 점을 밝혀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전통양식에서 혼합양식, 혼합양식에서 외래양식으로 주류 문화는 변화해가는데, 반영된 문화적 요소들과 시대상 역시 알아볼 수 있었다.

1. Introduction

오늘날 시각 매체와 음성 매체 그리고 둘을 합친 영상매체를 넘어 VR (Virtual Reality), IMAX, 플라네타리움 등 기존의 감각을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기록과 출력 기기 모두가 상용화된 감각 매체는 오감 중 시각과 청각 두 가지뿐이지만 감각 매체의 전망과 기술 발전속도를 고려하면 새로운 감각 매체의 시대는 언제든지 도래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축음기가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과 이에 대한 인식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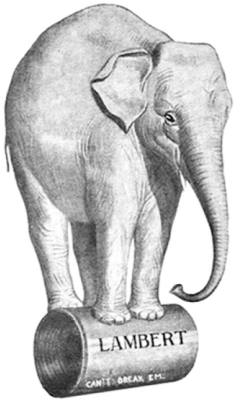
2. Methods

- ① 축음기의 발전과 미국 사회에 관한 논문 및 기사
- ② 1900년대 미국의 유행기 광고의 문구 분석

3. Results

① 축음기의 브랜드화 현상

· 축음기가 상업화되면서 다양한 광고 방법이 사용되었다. 과장광고, 인물을 표면에 드러낸 광고, 상표 및 특허, 기독교 성경에서 모티프를 찾은 광고까지 다양하다. 이와 함께 상업술 또한 발전하는데 대표적인 예시로는 광고 자체를 쿠폰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다. 이는 당시 축음기가 도소매점에서 달러를 통해 개별 판매되었음을 고려하면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다.



코끼리가 밟아도 괜찮아요!

1902년부터 1905년 사이에 셀룰로이드 실린더를 만들어 제조했던 시카고의 램버트 축음기 회사(Lambert Phonograph Company)는 자신들이 만든 실린더의 내구성을 광고하기 위해 코끼리를 등장시키기도 했어요. 코끼리가 육중한 몸을 이끌고 실린더 위에 올라갔는데도 실린더가 부서지지 않는다는 모습을 강조한 광고였지요. "절대로 무술 수 없어 Can't Break 'em" 라는 제목의 이 광고 역시 당시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 당시 축음기에 대한 소비를 결정하는 대상이 남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에는 어린이와 여성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여성을 이용하는 사치품에 대한 광고의 풍조로,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당시의 광고는 오늘날의 광고에 비해 글이 많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② 축음기가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

· 축음기는 당대의 재즈, 블루스, 록 등 축음기는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 장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 축음기는 실제 오페라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잘 전달하며 대중화를 이끌었다

· 축음기의 반복 기능은 개인과 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음악을 매개하여 시간을 초월한 문화 수단으로 이용됨.

- 교황 레오 13세의 녹음이 디스크 판으로 판매되면서 종교적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 때 축음기가 사용되어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 프랜시스 배로의 그림이 축음기 회사의 상표로 사용되었다. 1900년에 특허청에 정식 상표 등록을 마치면서 진정한 브랜드 시대가 되었다.



③ 축음기 이후 라디오로 발전한 매스미디어

· 축음기는 라디오로 발전하였다. 라디오는 오늘날처럼 일방통행의 매스미디어가 아니었으며, 원래 상호 송수신이 가능한 아마추어 음성 무선 통신망이었다.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네트워크는 1900년대 초 미국과 영국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1912년 미국에는 122개의 라디오 클럽이 있어 전파 미팅이 활발했다. 이 클럽들은 서로를 연결하여 광역망도 만들어 나갔다.

· 지금의 라디오 방송국이라 할 만한 것이 시작된 것은 1920년 'KDKA국'.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방송을 시작으로 후버 대통령의 담화, 교회의 미사, 경기중계, 뉴스나 강연 등을 방송했다. KDKA가 무선 라디오국들과 다른 점은 정해진 시간에 방송을 한 것과 산업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점이다.

· 그뒤 미국의 전기 기구 회사, 백화점, 신문사 등이 차례로 방송국을 설립했다. 이들 지역 미디어는 컨트리 음악, 권투나 야구 등 프로 스포츠를 중계하는 전국 미디어로 발돋움하는데 여기에는 더 넓은 시장을 찾아 라디오를 유력한 광고 매체로 여기게 된 기업들의 광고가 뒷받침되었다. 미국의 라디오 문화는 전세계로 전파되었다.

4. Discussion

· 미국의 축음기는 단순히 대중문화를 전파하는 데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다. 축음기가 미국의 문화와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적 매체'로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 미국의 축음기 문화는 그뒤 라디오 문화로 발전하여 매스미디어는 물론 광고 매체로 발전하여 자본주의와 함께 발전하였다.

1. Introduction

오늘날 K-Pop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중가요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1961년 ‘음반에 관한 법률’, ‘공연법’, ‘영화법’ 등을 제정하며 문화를 탄압했다. 이때의 금지곡들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때도 우리나라의 대중가요는 일제에 의한 검열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준희(2007) 일제 시대 음반검열 연구’에 따르면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본 연구팀에서는 일제강점기 대중가요 검열 사례 및 실태와 당시 대일본 제국헌법에 적용했을 때의 법적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2. Methods

- ① 대중가요 검열의 사례 분석
- ② 대일본 제국 헌법안 적용

3. Results

- ① 일제강점기 대중가요 검열 사례 및 실태 소개



- ① 일제강점기 음반 검열법

1933년 5월 22일, 『조선총독부관보』에 조선총독부령 제47호 “축음기 레코드 취체규칙”이 반포되었다. 이전까지 정격화된 법적 조치는 없었으나 1920년대 조선에 일본 음반 회사가 진출했다. 또한, 1930년대 축음기가 보급되면서 음반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이후 조선총독부는 음반의 창작 및 판매와 관련한 질서를 규정하는 규칙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축음기레코드 취체규칙”을 반포하였다.

규칙에서는 사회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유로 치안방해와 풍속괴란을 규정하였으며, 그 외 특정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가수의 가창법이나 목소리가 검열의 기준이 되기도 했다. 위의 규칙이 도입된 본래의 목적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혀 국가 운영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통제하기 위함이지만 일제는 자의적 판단을 반영하여 음반을 통제하고 검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 ② 일제강점기 검열법의 확대

“축음기레코드 취체규칙”은 1937년 중일 전쟁 전에 새로운 음반 검열 지침이 등장하면서 확대되었다. 일본 내무성에서는 개선을 다루거나 전사를 애상적으로 표현하는 등 나약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노래를 시국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단속하였다. 또한 조선총독부에서는 군인 유가족의 공립한 처지나 출정한 군인의 처참한 전투 상황을 그려 사기를 저해하는 내용을 단속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1941년 태평양전쟁까지 음반의 검열은 확대되고 강화되었다.

- ③ 일제강점기 대중가요 검열 실태

“축음기레코드 취체규칙”이 반포된 1933년 5월 전에도 음반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졌다. 1932년 10월 7일에 발행된 『동아일보』, 1933년 5월 10일자 『매일신보』, 1933년 7월 12일자 『조선일보』에서 음반 검열 및 압수에 관한 기사도 보도되었다. 이때, 『동아일보』는 검열 주체가 ‘경기도 경찰부’로 지역별 경찰서 산하 고등경찰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이 “축음기레코드 취체규칙”이 공포되기 이전부터 지방행정관청이 음반 발매와 판매 등을 검열하고 조선총독부 도서과에서 출판물을 검열하는 2원적 검열체제가 이루어졌다.

- ② 당시 대일본 제국 헌법에 적용했을 때 생기는 법적 문제

- ①-1. 대일본 제국 헌법 제2장 제23조

일본 신민은 법률에 따르지 않은 체포나 감금, 심문 및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 ①-2. 대일본 제국 헌법 제2장 25조

일본 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허락 없이 주소(住所)의 침입을 받거나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축음기레코드 취체규칙”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처벌을 허가한다. 하지만, 이는 죄형법정주의 중 처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비슷한 맥락에서, 위 대일본 제국 헌법은 법률에 따르지 않는 체포를 허가하지 않는다.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침입이나 수색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에도 어긋난다.

- ② 대일본 제국 헌법 제2장 제29조

일본 신민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언론과 저작, 인행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황국신민화 정책을 통해 일본은 조선인들을 자국의 신민으로서 동화시키려 했다. 그러한 의도와 달리 음반 검열 제도는 일본 신민으로 규정된 조선인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저작의 자유를 경시하고 있음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법적 권리 침해를 발생시킨다.

- ③ 대중가요 검열이 사회에 끼친 영향

‘한국 대중음악 수용자 연구(조장원)’에 따르면, 식민지 시기에 대중들은 애조가의 형태로 삶의 어려움 등을 가사로 담아냈다. 대중가요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음의 안식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검열 초창기에는 ‘타향살이’라는 작품처럼 나라를 잃은 상실의식을 드러내는 작품이 다수였지만, 검열이 심해진 1940년대에는 전쟁 상황이 겹치며 대중음악이 군국주의를 홍보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일제의 대중가요 검열이 직접적인 정서를 표출하는 음악의 기능을 무력화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정서적 공동체를 형성하려던 우리나라 대중들의 대중음악 수용은 검열로 인해 한 폭 꺾이고 말았다.

4. Discussion

출판물에 대한 검열이 무조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1920~1930년대 음반회사의 설립으로 음반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음반의 창작, 판매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을 고려하여 규제를 가하고자 제정된 것이 “축음기레코드 취체규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항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도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진 일제강점기 당시의 검열은 현재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했다. 이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물론, 대일본 제국헌법의 관점에서도 법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였다.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어떠한 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 없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정당한 심사를 거쳐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앞으로의 국가는 공정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제정된 법 아래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경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과거의 부당함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1. Introduction

축음기(蓄音機)는 1877년 에디슨이 발명한 지 불과 몇 년 후에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되었는데, 사음기(寫音機), 유음기(有音機), 유성기(有聲器)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다가 1930년대부터 축음기로 통칭하게 되었다. 1880년대에 미국에서 수입한 유성기(有聲器)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부와 신분의 상징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대중 문화를 생성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유성기의 원리를 탐구하였다.

2. Methods

- ① 문헌 연구 : 대중가요의 발전 과정과 종류 그리고 유성기 음반 시장
- ② 대중가요 분석 : 전래적 양식의 색이 짙었던 기존의 민요, 외래 양식이 유입되며 나타난 만요, 그리고 신유행가까지 분석.

3. Results

① 유성기의 원리

포노그래프 또는 Gramophone은 축음기 또는 유성기로 번역하고 있다. 유성기는 기록과 재생이 바늘 하나로 가능한 기계이다. 유성기의 발명으로 시간을 추상적으로 기록하는 수단이었던 문자와 악보를 보완하는 매체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유성기의 원리는 초등학교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다. 강철 바늘과, 은박 포장지, 구리로 된 실린더만 있으면 소리를 저장할 수 있다.



- 녹음 : 축음기는 음파를 기록하고 재생하는 기계로 소리를 모을 수 있는 나팔 모양의 관이 필요하고, 이 관의 끝에 작은 진동에도 잘 떨 수 있는 얇은 막을 설치한다. 이 얇은 막은 파형을 기록할 만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도 끝이 날카로운 물체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이 날카로운 물체가 파를 새길 수 있을 만큼 무른 기록 장치가 필요하다. 일정 시간의 소리를 모두 새겨두기 위해서는 기록판이나 축음기 자체 둘 중 하나가 시간이 따라 일정하게 움직여야 한다.
- 재생 : 기록된 음파 형태에 따라 떨리는 바늘의 움직임이 막으로 전달되고, 이 막의 떨림 소리가 나팔 모양의 관을 통해 확대된다. 초창기 축음기는 날카로운 물체로 바늘이나 단단한 끈을 사용했고, 기록 장치는 밀랍 등을 이용했다
- 축음기의 기록 매체는 시간이 지나면 단단하게 굳는 성질이 있는 합성수지를 사용하게 되었다. 바늘의 진동 방향도 바뀌었는데, 축음기 바늘이 상하로 움직이던 것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게 되어 기록 매체도 원통형에서 원반 형태로 제작되었다. 흔히 '레코드판'이라고 불리는 LP 판은 모터를 이용해 회전시키면서 소리를 재생하게 되었다.

② 어코스티크 녹음

나팔관을 통해 바늘로 소리를 직접 새겨 넣는 어코스티크 녹음 방식으로는 유성기 음반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음질도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1회 연주에 몇 개밖에 기록할 수 없어 악단이나 가수는 판매용 녹음을 위해 몇시간이고 같은 곡을 연주하고 불려야 했다.



③ 전기 녹음과 대중가요의 탄생

전기 녹음은 마이크를 통해 수집한 전기 신호를 앰프로 증폭하여 소리를 기록하는 녹음 방식이다. 전기 녹음을 도입하면서 음질도 좋아지고 생산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전기 녹음으로 취입한 한 장의 금속 원반 틀에 합성수지를 넣어 대량으로 레코드를 찍어냄에 따라, 이제 대중가요는 대중에게 판매하는 문화 상품이 되었다.



4. Discussion

대중가요의 성격을 대중 매체 가요라고 좁게 규정할 경우, 소리를 기록하고 재생하는 매체, 즉 테크놀로지가 대중가요를 탄생시켰다. 유성기를 발명한 사람은 발명왕 에디슨이므로, 에디슨이 대중가요를 탄생시킨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에디슨이 발명한 유성기는 소리를 기록하는 기계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대중 매체가 되기 위해서는 매커니즘의 우수성보다는 콘텐츠를 담는 그릇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 유성기라는 하드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반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소리를 재생하는 기계인 유성기가 대중가요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음반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녹음과 복제 기술이 대중가요를 탄생시킨 것이다.

1. Introduction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침탈은 객관적 사료가 풍부한, 자명한 사실이나 그 문화적 침탈에 대해서는 그 영향, 심지어 침탈 여부에 대해서도 식민 사상과 주체사상이 대립 중이다. 위 논제에 대한 기존 연구는 널리 진행되어 왔으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자료를 근거로 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당대 한국 대중문화의 일면을 나타내는 대중가요의 가사를 근거로 세밀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객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Methods

1 데이터 마이닝 : 일제강점기 전과 후의 대표적인 대중가요를 선정하고 가사의 조사 단위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민요와 192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유행했던 대한민국의 대중가요와 그 가사를 찾아본다.

2 데이터 전처리 과정 :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고, 무의미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데이터를 처리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정한다.

- 1) 합성어는 더 이상 분석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처리한다. 예) 봄바람, 뱃노래 등
- 2) 자체로 의미를 갖지 못하는 조사는 계량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 3) 용언(동사, 형용사)의 어미는 모두 계량에서 제외되었으며, 기본형으로 바꾸어 계량화한다.* 용언의 어미를 기본형으로 바꾸어 계량함에 있어서 우리말 근사전에 실려 있는 기본형을 따랐다. 예) 분다, 부는 = 불-
- 4) 동음이의어, 다의어 등은 그 뜻이 구별될 수 있도록 단어마다 별도의 설명을 덧붙인다. 그 의미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 품사를 표시하거나 한자, 영문으로 뜻을 부여했다. 예) 그(대), 먹다(마음을-)
- 5) 도입부, 후렴구, 감탄사 등의 반복적인 어구는 모두 1회로 계량했다.
- 6) 동일 외래어가 서로 약간의 차이를 두고 표기되었을 경우, 이를 대표형 한 개로 통일하여 계량했다.

3 분석 및 데이터 시각화 : 텍스트 분석 및 시각화 프로그램 TAVIS를 활용하여 텍스트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한다. (아르키메데스의 나선, 글자수 300, n)

4 비교분석 : 3에서 분석한 자료를 통하여 일제강점기 한국과 일본의 대중가요를 비교 분석한다.

3. Results

1 데이터 마이닝 결과 (한국 민요)



2 데이터 마이닝 결과 (1920-1945 한국 가요)



3 데이터 마이닝 결과 (1946-1960 한국 가요)



4 데이터 마이닝 결과 (1961-1994 한국 가요)



4. Discussion

본 연구는 그간 연구들과는 달리, 정서적·문화적 측면에서 가사 하나 하나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계량화된 수치를 통해, 당시 대중가요에 어떤 언어적인 특징들이 드러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중가요가 현대소설이나 현대시보다 더 자주 대중들에게 접해지는 오늘날, 대중가요의 가사는 현대소설이나 현대시만큼, 혹은 그보다 더 언어학적인 연구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대중가요의 가사를 통해 대중들의 언어생활을 바라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 Introduction

일제강점기는 새로운 사회제도와 서양문물의 도입으로 대한민국의 대중문화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중 대중가요의 변화는 많은 자료량과 그것의 사회문화적 영향력 덕분에 대중문화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서 사용되기에 적절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이전 (1860년~1910년), 일제강점기(1910년~1945년), 광복 이후(1945년~1960년), 현대(1965년~1993년) 각 시기의 대중가요 가사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통해 대중문화의 변화 동향을 비교하여 일제강점기가 대중문화에 가져온 변화를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2. Methods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대중가요로는 『유성기로 들던 가요사(1925~1945)』(신나라 뮤직, 1992)에 수록된 곡들을 자료로 사용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전후의 대중가요와 비교 분석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전 조선 시대에 대중적으로 불렸던 민요와 해방 후 1945년부터 1960년까지의 대중가요도 분석하였다. 사용된 자료는 각각 『조선민요곡집 1』(보천보전자악단, 1991), 『조선민요곡집 2』(보천보전자악단, 1992), 『유지나 민요잔치』(홍익선, 2009)와 『유성기로 들던 가요사 두 번째(1945~1960)』(신나라 뮤직, 2000)이다. 각 앨범에 수록된 곡들의 가사를 수집하여 텍스트를 확보하였다. 수집한 텍스트는 Tavis(Text Analysis and Visualizatio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량화하였고, wordcloud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를 단어 구름으로 표현하였다.



Tavis

텍스트 분석 및 시각화 (Text Analysis and Visualization)

자료 입력 방식을 선택해주세요



3. Results

① 시대별 대중가요 속 어휘들의 빈도에 따른 단어 구름



1960~1993

- 조선에서 일제강점기(1925~1945)로 변화하면서 5개, 일제강점기에서 1950년대까지 3개, 1960년대 이후로 변화하면서 4개 주요 단어가 바뀌었다.
- 일제강점기인 1925년부터 1945년까지에서만 나타나는 단어로는 '노래'가 있으며, '마음'은 1960~1993에도 꾸준히 나타나지만, 그 이전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② 1925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대중가요 속의 고빈도 어휘 순서

1. 꽃	9. 그대	17. 하늘	1. 있다	9. 하다	17. 날
2. 울다	10. 오다	18. 월	2. 울다	10. 꽃	18. 이
3. 나	11. 아아	19. 무엇	3. 당신	11. 가다	19. 밤
4. 꿈	12. 눈물	20. 이	4. 그대	12. 꿈	20. 되다
5. 저	13. 사랑	21. 피다	5. 나	13. 마음	21. 가슴
6. 보다	14. 가슴	22. 바람	6. 저	14. 오다	22. 없다
7. 마음	15. 가다	23. 되다	7. 사랑	15. 눈물	23. 보다
8. 밤	16. 날	24. 사람	8. 사람	16. 아아	24. 알다
		25. 산			25. 혼자

① 한일 유행가의 고빈도 어휘

② 유성기 음반의 일본어 어휘

- '마음', '가슴'은 1925~1945년에 새로 나타나는 어휘들이며, '눈물', '사랑'은 기존 조선의 민요부터 계속 출현한 고빈도 단어이다.

③ 1925년부터 1945년까지 중국어 대중가요 속의 어휘의 빈도 및 순서

1. -의	9. 또한	17. 목적
2. 나	10. 아니	18. 가다
3. 너	11. 일	19. 어찌하여
4. ai	12. 엄마	20. 중앙
5. -에서	13. 오다	21. 안
6. -이다.	14. 하고 있다.	22. -한적이 있다.
7. 있다	15. 있다	23. 우리
8. 조사(완료 표시)	16. 위	24. 낙타 방울
		25. 여기조사

4. Discussion

- 일제강점기인 1925~1945년부터 나타난 주요 단어 5가지 중 일본과 공통 어휘는 '사랑'과 '눈물'이며 이중 '눈물'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 일제강점기의 중국 노래 가사 중에서 '사랑'과 '눈물'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 1925년부터 1960년까지 특히 높은 빈도를 보였던 것은 '고향', '그리'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민중들이 고향을 떠나 있었던 상황을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Introduction

일제강점기에 의한 대중문화 이식의 진위 여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각 나라나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는 쉽게 구전되는 대중적인 노래를 통해 전달되고 통합되므로 이식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행가를 분석하고 비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중 1930년대에 발흥했던 희극적 대중가요인 만요 가사 어휘와 일제강점기 이전에 대중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던 민요 어휘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논란에 대한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Methods

① **작품**: 일제강점기 대중가요 사전에 제공된 자료 뿐만 아니라 음악 앱 'bugs'의 '1940년대 이전 베스트 가요 컬렉션'에서 선정. 일제강점기 이전 민요: '해법 문학 고전문헌(민요파트)'와 '고전시가의 모든 것'에서 선정.

② **노래 가사 어휘 계량 방법**

- 1) 조사는 계량하지 않는다.
- 2) 용언(동사, 형용사)의 어미는 모두 계량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본형으로 바꾸어 계량 하였다.
- 3) 마찬가지로 모든 형식 형태소는 계량하지 않는다.
- 4) 합성어를 최소 단위로 잡고 더이상 분석하지 않았다. 예) 봄비
- 5) 한자어는 그대로 가져가나, 현대와 다르게 불리던 단어는 현대어로 번역하여 계량하였다. 또한 방언도 표준어로 바꾸었다. 예)시방→지금, 질계→길게 (O)
- 6) 특수부호는 생략한다.
- 7) 보조용언은 본 용언과 붙여서 분석하였다. → 보조용언을 본 용언과 구별지어 분류하는 것은 단어의 의미를 과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보조용언과 본용언은 합쳐서 표현하되 '~않다'는 예외로 한다.
- 8) 설의법과 같이 단어가 아니라 표현상의 부분은 삭제한다. 본 연구는 어휘적 측면에서 시대별 변화 및 차이점을 살피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예) 어떻게 먹지 않을 수 있겠느냐 → 먹다
- 9) 나나하쿠 하찌쥬, 모시모시, 아이 러브 유와 같은 표현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계량한다. 그 또한 과거에 비해 변화한 점이라고 측정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
- 10) 한 곡 내에서 한 번 이상 나오는 단어는 모두 하나로 취급한다.

③ **데이터 시각화와 네트워크 분석**

· Tavis의 워드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데이터 시각화를 진행했다. tavis의 통계에 따라 일제강점기 대중가요와 민요에서 빈출 순으로 나열했을 때, 상위 45위의 단어 중 공통되는 단어를 찾았다.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NodeXL Basic을 이용하여 단어 간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했다.

3. Resul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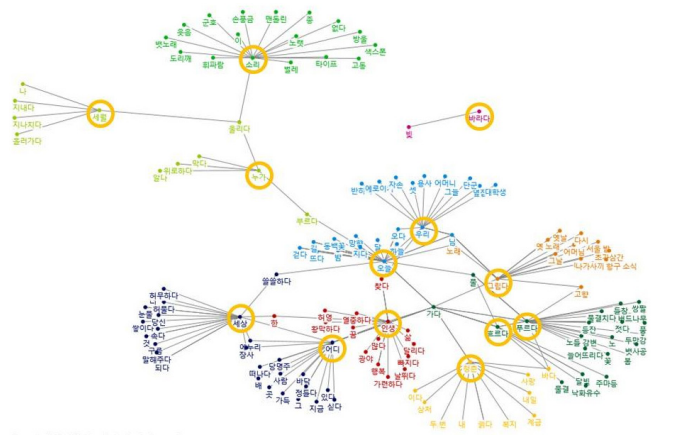
① **빈도 분석**

· 일제강점기 대중가요의 경우 '사랑, 마음, 부르다, 세상, 흘러가다'의 단어가, 민요의 경우 '우리, 아니다, 세상, 세월, 팔자'의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대중가요와 민요의 사용 횟수 상위 45개 단어를 기준으로 '우리, 세상, 세월, 어디, 그림다, 소리, 청춘, 흐르다, 오늘, 부르다, 누가, 인생, 바라다'의 단어가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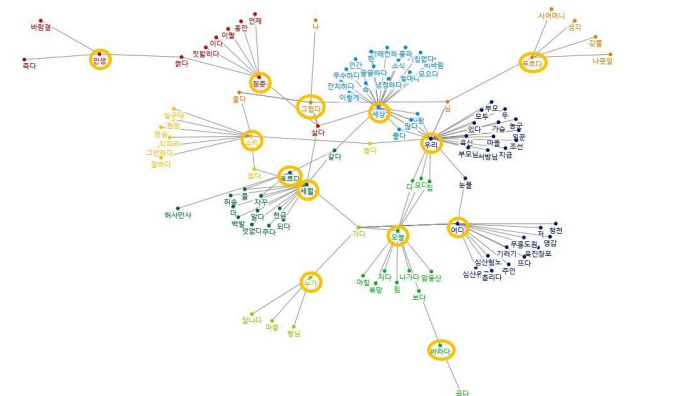
· 워드 클라우드는 단순 빈도 분석을 시각화 한 것으로, 어휘 간 연결망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NodeXL을 통해 빈도수가 높은 공통 단어 13개의 의미 연결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② **일제강점기 대중가요 가사 어휘의 네트워크 분석**



· 일제강점기 대중가요 가사를 네트워크 분석하면, '세월'은 울리다, 지나치다 등 부정적인 감정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청춘'은 상처로 그려지고 있다. '오늘'과 '인생'은 여러 공통 단어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공통 단어 중 '바라다'는 다른 공통 단어와는 연결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민요 가사 어휘의 네트워크 분석**



· 민요 가사를 네트워크 분석하면, '세월'은 덧없다, 못살다, 가다, 백발 등 밝잡을 수 없는 시간, 부정적인 감정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청춘 또한 짓밟히는 존재로 형성되고 있다. 민요에서는 '세상'과 '세월'이 연결 단어 역할을 하고 있다. 공통 단어는 모두 다른 공통 단어와 연결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Discussion

워드 클라우드를 사용한 단순 어휘 계량 연구를 통해 시대에 따른 어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어휘 연결망 속에 특정 어휘들은 쓰이는 맥락이나 형성하는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HANEUL ACADEMY

교육 성과 II



CEDA 방식 토론



CEDA 방식 토론 논제	26
CEDA 방식 토론 결승전 요약	28
CEDA 방식 토론 결승전 영상	30
교육용 다큐멘터리 영상	31
프로젝트 참여 인원	32

CEDA 방식 토론 주제 : 대중가요는 일제에 의해 이식되었다.

- 일제강점기에 전통가요(민요, 잡가)는 외래가요(유행가, 재즈송)와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대중가요를 둘러싼 **이식론**과 **자생론**은 식민지 근대화에 관한 수탈론과 개발론과 유사한 대립 구도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인천하늘고등학교 교과 기반 미디어 탐구팀 학생들은 대중가요에 관한 이식론과 자생론을 모두 공부하고 토론을 준비하였으며, 토론 대회를 거치면서 더욱 탄탄한 논리로 발전시켜 **교육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였습니다.

1 찬성 측 : 대중가요 이식론

- 일제강점기에는 대중매체(라디오, 음반 등)의 발달과 함께 일본을 경유하여 이식된 외래 양식이 유행가와 재즈송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대중가요를 형성시키고, 기존의 민요와 잡가와 같은 전통적인 대중가요를 **신민요**와 **만요(漫謠)**와 같은 새로운 형태로 변형시켰다.
- 식민지 조선 대중들에게 유통된 음반들은 **일제의 문화 지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라디오 방송 및 음반 검열 제도 등을 통해 일본에 의해 이식된 외래 음악 양식이 식민지 조선의 대중음악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유성기 음반에 의해 발전한 한국의 대중가요(상상도)

2 반대 측 : 대중가요 자생론

- 일제강점기에 자생적인 대중가요인 민요 및 잡가는 일본에 의해 이식된 대중가요인 유행가와 재즈송과 마찬가지로 유성기 음반에 의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 **민요의 대중화 및 전국화** 현상 : 전통 음악이 음반으로 유통되면서 민요의 지역 토리가 사라지면서 표준화되고, 민요풍의 대중가요로 창작된 **신민요**가 발전하였습니다.
- **미국 빅터사의 한국 전통 가요 음반 제작** : 1906년 미국 빅터사는 선교사인 호머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 박사를 통해 조선의 소리꾼과 연주자들을 모아 경성에서 녹음한 음반을 판매하였습니다. 이 음반에 수록된 곡은 일본에 의해 이식된 대중가요가 아니라 ‘유산가’, ‘제비가’, ‘담바귀’, ‘아리랑타령’, ‘적벽가’ 등과 같은 잡가, 판소리, 민요, 시조 등과 같은 한국 전통 음악이었습니다.



RECORDED IN KOREA
 Price 60¢ in U.S.A
 VICTOR RECORD
 륝각거상六樂舉觴
 한국서울韓國京城
 악공등樂工等
 KYukak - Kosang
 13545



1906년 삼현육각(三絃六角) 악공 연주의 녹음 장면(상상도)

CEDA 방식 토론 결승전 요약




순서		주요 논지
1	찬성 측 1번 토론자의 입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은 문맹률과 실업률이 높아 신문이 매스컴의 역할을 하지 못함. 판소리도 쇠퇴하고 있었으며 매스컴 발달이 미약함. · 한일 대중가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 고빈도어 '올다', '사랑', '꿈', '눈물' 등은 중국 가요와는 일치하지 않음.
2	반대 측 2번 토론자의 교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강점기 매스컴이 미약했다는 근거는? · 음반과 라디오 등에 의해 판소리가 널리 보급되었다는 사실을 아는지?
3	반대 측 1번 토론자의 입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강점기 대중가요에 드러나는 한의 정서는 일본이 아닌 우리만의 정서임. · 일제강점기 검열 제도는 우리 대중가요 속에 담긴 우리의 정서를 탄압하기 위한 것임.
4	찬성 측 1번 토론자의 교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강점기 대중가요 가사는 한보다는 사랑과 이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아는지? · 일본 대중가요의 가사를 우리말로 옮기면 한과 유사한 정서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5	찬성 측 2번 토론자의 입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강점기 우리의 대중가요는 일본에 의해 이질적으로 변화함. · 조선은 스스로 대중문화를 발달시킬 수 있는 토대가 없었으며, 일제 검열에 의해 변형된 대중 문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음.
6	반대 측 1번 토론자의 교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음반 회사들이 조선의 전통 음악과 민요를 발굴하고 조선인의 감수성에 맞는 유행가와 대중 가요 음반을 제작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7	반대 측 2번 토론자의 입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의 삶과 문화가 반영된 민요가 발달하였음. · 저항 문학의 경우 일본에 의해서 이식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8	찬성 측 2번 토론자의 교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요는 일제강점기 전체 음반 중 2.5%밖에 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 저항 문학은 매체를 통해 널리 유통되지 못해 큰 영향력이 없지 않았는지?

순서		주요 논지
9	반대 측 1번 토론자의 반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스 미디어의 발달이 미약하다는 논거는 이식론을 주장하는 찬성 측의 논거가 아니라 오히려 자생론을 주장하는 측의 논거임. · 일제강점기에 일부러 한과 유사한 일본의 정서를 조선에 주입시켰을 리 없음. · 문화 이식 여부를 따질 때에는 사랑과 이별과 같은 보편적인 정서는 어느 쪽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일제강점기 대중들은 매스 미디어보다는 교회같이 일제의 검열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 구두로 소통하는 사회였음.
10	찬성 측 1번 토론자의 반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과 유사한 정서가 다른 나라에도 있으므로, 모호한 개념인 한을 근거로 자생론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이풍진 세월〉과 같이 일본의 유행 창가를 변안한 노래들이 먼저 조선에 유행을 하고, 1920년대 후반이 돼서야 조선인이 창작한 〈낙화유수〉, 〈방랑가〉 등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영향을 받았음. · 일제강점기가 구두로 소통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 흥난파 담화록을 통해 음악을 만들어도 발표할 매스컴이 부족하며, 구전으로 전파할 수 있는 공간조차 부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일제강점기 초기, 조선은 대중문화의 기반인 자본주의 발달이 미약하였음.
11	반대 측 2번 토론자의 반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은 우리만의 개념이며 유사한 다른 나라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음. · 매스 미디어의 발달이 미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은 일본의 영향을 덜 받았다는 주장이 타당함. 1926년 조선인에게 라디오가 보급된 비율은 0.01프로에 불과했음. · 용어가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일본에 의해서 이식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12	찬성 측 2번 토론자의 반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민지 조선에서 대중이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매스 미디어가 필수적. 전통 음악 역시 음반 산업에 의해 발전한 것이지, 자생한 문화를 계승한 것이 아님. · 저항 문학은 대중문화로는 발전하지 않았으므로 논거로 부적합함. · 교회를 통해 구두로 대중문화를 전파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일제강점기 당시의 매스컴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료와 모순됨.



CEDA 방식 토론 결승전 영상



 동영상 홍보 자료(클릭)



교육용 다큐멘터리 영상 : 대중가요, 테크놀로지와 만나다

 동영상 홍보 자료(클릭)



2020학년도 인천하늘고등학교 교과 기반 미디어 프로젝트 참여 인원

프로젝트 기획	김일형(인천하늘고등학교 교장) 이영종(인천하늘고등학교 교감) 천도현(인천하늘고등학교 꿈열정지원부장)
CEDA 방식 토론 지도	김승우(인천하늘고등학교 윤리 교사)
프로젝트 지도	이형주(인천하늘고등학교 사회 교사) 정아미(인천하늘고등학교 물리 교사)

팀	학번	성명
R 독서팀	20512	윤은지
	20704	김소희
	20714	정채윤
	20721	이동규
L 문학팀	20111	장효리
	20317	김진섭
	20408	이하람
	20513	이다빈
E 영어팀	20710	심서현
	20102	권수진
	20316	구민희
	20418	김광민
Po 정치팀	20802	권가인
	20805	김예림
	20107	손인서
	20211	안재은
Ph 물리팀	20511	오수빈
	20715	정혜진
	20819	김동현
	20207	배유리
	20325	정민호
	20405	노혜빈
M1 수학 1팀	20509	양선우
	20619	김수환
	20820	김상훈
	20126	이승찬
	20223	이정훈
M2 수학 2팀	20605	배민경
	20607	석채민
	20807	김창은
	20202	김수진
	20219	김현우
M3 수학 3팀	20326	최성안
	20716	최서영
	20718	문원국
	20811	이가현
	20109	이민아
	20213	이현아
	20310	성채현
	20421	박준한
	20502	권세은
	20817	고동범

프로젝트 설계	김평원(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



인천하늘고등학교

한 분야를 천착하는 전문가가 주목을 받았던 '분화'의 시대가 저물고
지식 노동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융합'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한 개인의 역량을 수능 시험과 내신 석차로 즐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천하늘고등학교 교과 기반 미디어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국어, 과학, 수학, 역사, 사회 등 정규 교과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만을 활용해도
수준 높은 작품을 만들면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김평원 교수 -